

목포 고하도 해상데크 부실공사 의혹

최홍립 시의원 “시방서 무시·땜질식 용접 등 안전위협”

목포시 “현장검증 거쳐 재시공 등 시공사에 보완 지시”

목포시가 고하도 헐링랜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데크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등 부실공사 의혹을 냥고 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8월 완공 예정인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하도 해안에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연장 2.7km 중 1차분인 1.1km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고 있다.

시는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미루리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 지난 1월3일 착공했다.

현재 다양한 복합공종(해상파일, 철구조물, 데크, 난간, 진입계단) 중

기초 부분인 해상파일과 철구조물 일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35%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단 위의 보행로인 해상데크 시공이 안전을 외면한채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최홍립 의원은 이 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공사수칙의 최하 기준인 시방서(설계도면)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관파일은 벌써부터 녹슬고, 시방서 상에서 강관파일에 설치돼야 할 볼트작업도 없이 한쪽이 녹슨채 받치며 있으며, 일반적인 용접방식으로 시공됐다.

또 용접된 강관파일의 수직 및 수평도 맞지 않아 대부분 땀질식 용접 등 부식의혹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허술한 용접으로 일관된 공사는 사후 막대한 보수비 발생은 물론 데크 위의 관객들의 안전을 담보해 낼 수 없다”면서 “재입찰을 통한 시공사 변경과 시공사 고소 및 제재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고하도 해변 인근에 하루 평균 160척의 선박이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항주파 등 너울성 파도로 해상 향타시 파일이 기울어지는 등 보완 및 재시공 시향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파일의 유동성(오차범위)을 이용해 보완 가능한 부분은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시공사에 보완을 지시했다.

또 최근 설계사, 시공사 등과 합동으로 현장을 검증해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해상파일, 철구조물, 용접부, 녹마이 등)은 재시공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도록 시공사에 요청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는 목포시가 요청한 재시공과 안전검증을 위해 상부 철구조물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이 완료될 경우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기간 동안 시공사가 제출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견증을 거쳐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스

사우나 주차장서 추락 차량 전복 50대 부상

21일 오후 7시46분께 광주 광산구 한 사우나 건물 주차장 3층에서 A(59·여)씨가 물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고 도로로 떨어져 뒤집혔다.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경사진 주차장을 내려오다 부주의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 기자

골프채로 유흥업소 13곳 출입문 부순 3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유흥업소 출입문 유리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10분께부터 10분 간 광주지역 유흥업소 13곳의 출입문 주변 강화 유리를 골프채로 파손, 7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김씨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지역 모 족력조직 행동대원인 매형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배현은 유흥업소 관리 명목으로 업주들에게 2억2000만원 상당을 갈취해 지난해 12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 “업주들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보복 범죄 예방에 나선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긴급 신고 기계를 지급한 뒤 순찰을 벌이고 있다.

인형뽑기방·세차장 지폐교환기 턴 일당 구속

정홍경찰서는 20일 공구를 이용해 인형뽑기방과 세프세차장 지폐교환기 만 턴 혐의(특수절도)로 A(20)씨 등 20대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 여자친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장흥군·강진군 일대 인형뽑기방 4곳과 세차장 1곳에서 지폐교환기를 파손하고 7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창생인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인형뽑기방과 세차장을 찾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 티켓에 넣고 동시에 젓히거나 절단기로 교환기를 부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홍필 기자

포항서 공동음식에 농약 넣은 60대 주민 검거

마을주민들이 축제 기간에 함께 먹기 위해 끓인 고등어추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를 받는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0여명의 마을주민이 식사할 공동음식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A(60대)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마을 공동취사장에서 주민들이 먹기 위해 끓인 고등어추어탕에 저독성 농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을 주민들은 수산물축제를 준비하면서 같이 식사하기 위해 20~30명분의 고등어추어탕을 끓였다.

그러나 이를 맛본 B씨가 구토와 함께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우연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처럼 위조한 법원 판결문을 지인에게 보

부동산 투자미끼 수억 사기 40대 구속

여준 이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A(4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B(41)씨에게 “리조트 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3배로 벌 수 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유산을 상속받아 보전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스

전남도 가축분뇨 배출

재활용시설 특별점검

전남도가 가축분뇨가 영산강 및 섬진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23일부터 2주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22개 시군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가축분뇨는 유기질과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 및 인의 농도가 높다.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살포하면 강 하천으로 질소, 인 등이 유입돼 어류질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녹조란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다로 호소나 유숙이 느린 하천에서 식물성플랑크톤인 낭조류나 규조류가 증식해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부적절하게 적용하거나 방지해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송경일 환경국장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잘 활용하면 자원이 되지만 부적정 보관 등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점검 결과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철회할 계획인 민족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평화와 화해협력 실천 국민행사에서 한 시민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같이 죽자”며 접근해 돈 뜯은 30대 사기범 구속 송치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20대에게 버킹리스트 실행 명목 등으로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33)씨를 검찰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8월1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해온 20대 B씨에게 생활비와 여행경비 마련 명목 등으로 37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죽기 전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자”며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행을 가고 싶다”는 B씨에게 신용도 향상을 빙자해 돈을 받아 아행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와 모델·원룸에서 살며 “조민간 여자친구”명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돈이 나오면 여행과 호화 생활을 즐긴 뒤 번개탄을 구입하자”고 속여 B씨 계좌·카드·보험 등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명의로 최신형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벌이고, B씨 몰래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3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행을 가고 싶다”는 B씨에게 신용도 향상을 빙자해 돈을 받아 아행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 먹은 사람의 불안한 삶의 상태를 악용, 흰심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모르고 있던 보험가입 내역을 찾은 뒤 대출받아 도박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화생자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규모화사업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명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창기금(30년, 1~2%) 농지매입자금 융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임차 지원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임대보증금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임대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화생자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재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증·경영 정착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임대차·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화 지원